
따듯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방 서 연

'삐빅— 학생입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등굣길 버스를 탈 때마다 나는 교통카드 찍는 소리가 익숙하게 귀에 박힌다. 늘 그렇듯 소리와 함께 눈에 들어오는 익숙한 풍경들. 내가 앉은 자리는 당연하다는 듯 피해가는 익숙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낯선 어른들의 시선. 한라산처럼 솟아오른 나의 배에서 시작한 시선이 천천히 올라와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지나 옛된 얼굴에서 멈추는 그 불쾌한 눈길들. 난 모든 게 익숙하지만, 그들은 나를 처음보는 생명체 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만삭의 여고생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있을 순 없는 일이라고.

따가운 시선들을 뒤로 한 채 주머니에서 엉킨 이어폰을 꺼냈다. 평소대로라면 엉킨 이어폰의 줄을 차근차근 풀어낸 후 단자를 연결했겠지만, 오늘따라 그 수고스러움이 배로 느껴져 곳곳에 지어진 작은 매듭을 무시한 채 이어폰을 귓구멍에 밀어 넣었다. 좌석에 등을 기대 채 너무 신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는 적당한 노래를 골랐다. 단자에서부터 엉킨 줄을 통해 내 귀에 흘러 들어오는 음표와 어절들을 즐기던 중,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이어폰을 뚫고 들어와 달팽이관으로 난입했다.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고등학생이 발랑 까져 가지고...'

뻔뻔하게도 한 아저씨가 임신부 배려석에 앉은 채 나를 보며 혀를 찼다. 나도 이제 6개월 차 임신부인지라, 다른 산모들의 배를 보면 몇 개월인지, 공주님일지 왕자님일지 어렵פות이 감이 잡힌다. 아저씨의 배 모양을 보아하니 임신 5개월 차 왕자님인 것 같다. 축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오지랖인 것 같아 금세 관두었다. 더 이상의 수군거림을 차단하고자 손에 들린 휴대폰 볼륨 버튼을 여러 번 눌러 소리를 최고치로 키웠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하나 사야하나.'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며 반복되는 지루한 하루를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학교에 도착해도 수군거림은 계속되었다. 학교의 생리는 평범한 것처럼 보

이나, 실상 너무도 복잡하여 교집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금만 다른 점이 있어도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배제 당하기 십상이다. 그렇게 소외당한 이는 쳇바퀴 같은 삶에 지친 학생들에게 씹기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어버린다. 하루에도 몇 번씩 책상에 엮어진 나를 가리키며 때로 몰린 아이들이 질린 기색으로 나를 구경하고 있었다. ‘재, 몸 팔다가 저렇게 된 거라며?’ ‘결레X’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은 화살이 되어 나를 향해 날아왔다. 때론 선생님을 포함한 어른들조차, 입에 담배를 문채 내 얘기를 하며 직장 생활의 권태로움을 이겨냈다. 초기에는 결코 들리지 않을 해명도 해보고, 무분별한 언어폭력에 상처를 입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저 뱃속의 아기가 쓴 인생을 맛보기 전부터 나쁜 말을 듣지 않길 바랄 뿐이다. 사람은 입이 없으면 본 게 있어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는 다르다. 입만 있다면, 사람은 눈이 없어도 마치 본 것처럼 떠들어댈 수 있다. 어쩌면 더 생생하게, 더 흥미롭게 이야기를 각색해낼지도 모른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그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자극적인 각본에 꼭두각시 인형처럼 장단 맞춰주면 그만이었다. 다른 색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좁고 불온한 집합에서 여집합이 살아남는 방법은 시선과 수군거림에 더불어 거머리처럼 따라붙는 소문에도 무더 지는 것 뿐 이었다.

사방이 가해자로 둘러싸인 학교에 가십거리가 되기를 자처하면서까지 등교를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뱃속의 아이와 무관하게 나는 임신부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한 학생으로서 학업을 이어 나가고 싶었다.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무상교육의 기회를 고작 임신이란 이유로 포기하기엔 내가 지나치게 알뜰했다. 남은 한 가지 이유는,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없다고. 모두에게 외면당한 여집합도 궁극적으로는 집합 안에 속해 있다고. 비록 ‘임신’ ‘여고생’ 이 동시에 소유하고 있기 자랑스러운 수식어들은 아닐 지 언정, 죄를 지은 것 마냥 숨어 있을 필요도 없었다. 대한민국 법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뒤집어 보아도, 청소년 임신을 금하는 법은 없다. 결국 임신도 개인의 선택이다. 하루에도 전국 각지에서 수백명의 사람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를 주문하듯이, 혼신을 다해 선택에 충실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임신한 여고생’ 도 존재가 가능한 조합이었다. 나는 학생과 임신부 신분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이유를 방패삼으며 무리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와 비슷한 수많은 소녀들이 사회의 편협적인 시선과 비난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감히 임신부 배려석에서 혀를 차며 눈초리를 주는 배 나온 아저씨보다 당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우리는 여느 학생과 같이 평범하게 학교를 다닐 권한이 있으며, 여느 임신부와 같이 공공장소 임신부

배려석에 앉아 지친 몸을 충전시킬 권리가 있다. 그저 십대의 어린 나이에 한 임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누군가는 들어줄 하늘을 올려다보며 되새겨 본다.